

100년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주 만든다

미세먼지 저감·도시공원 등 207개 사업 올 2400억 투입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전기차 보급사업 적극 추진

광주시가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올해에만 207개 사업에 247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0년 후에도 기후변화에 강하고 환경 위해(危害) 걱정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도시공원 조성, 건강한 물관리 등 207개 사업에 2470억원을 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22개 445억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13개 39억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29개 321억원 ▲도시심속 녹지 확충사업 91개 615억원 ▲건강

한 물환경 조성사업 29개 485억원 ▲친환경 하수관리 사업 16개 551억원 등이다. 다양한 시민지원 사업도 눈에 띈다.

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141억원, 6560대)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7억원, 142대), 전기차 보급(148억원, 1200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5억원, 2000여 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8억원, 120개소),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11억원, 430동),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4억원, 13대),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1억원, 50개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광주시는 시민지원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2~3월 중 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별로 차량 및 보일러 교체(기후대기과 613-4343), 방지사설 설치 및 슬레이트 처리(환경정책과 613-4151),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자원순환과 613-1671), 빗물저금통 설치(물순환정책과 613-1621)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자원순환 분야는 생활쓰레기 원천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광주형 자원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실현가능한 시민 실천사업을 제시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교육·홍보를 통해 실천력을 높이는 등 자원순환 시민실천운동도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9개 공원 10개 사업)은 공원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이전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기획 인가·고시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분야는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6

분구(두암동 구간) 빗물·하수 분류사업,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및 수안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나선다. 시는 특히 자연적인 물순환체계 회복을 위해 상수지구에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제1하수처리장 개량 등 주요 현안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장은 "100년 후 환경이 건강한 광주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시민 밀착형 환경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 추진시 시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시군, 올 3조 1000억 공사·용역 발주

도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상반기 85% 집행 방침

전남도가 올해 6000억원 어치의 사업을 발주한다. 22개 시·군을 포함하면 3조 1000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현장 자재를 도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자체 발주 금액 6000억원과 시·군을 모두 합쳐 올해 3조 1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발주계획을 발표하고, 도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85%를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전남도가 자체 발주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 321건(4930억원) ▲용역 316건(415억원) ▲물품 419건

(506억원) 등으로 모두 1056건에 5851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74건(1342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강진 까치내제터널 개설 공사 578억원 ▲곡성 유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94억원 ▲진도 청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89억원 ▲순천 회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24억원 ▲나주 노안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04억원 ▲무안 청천천 9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한 사업의 85%인 998건(4978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발주할 계획이다.

박용일 전남도 회계과장은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요될 자재는 도내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마이스산업 시·군 확산 나선다

행사 개최 기관·단체 인센티브 지역별 체험관광 적극 권장

전남도가 무공해 청정 산업인 전시·컨벤션(MICE) 산업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 개최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별 고유한 체험관광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전남도내 각 시·군은 1800여 명이 참가한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회의 등 총 73건의 크고 작은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다. 참가자 규모는 총 3만 69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건 9741명, 2018년 15건 9062명, 2019년 38건 1만8184명으로,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 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마이스 연관시설이 일부 갖춰진 여수가 선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순천과 목포 등 회의·숙박시설과 관광·체험 콘텐츠를 갖춘 시·군으로 전시·컨벤션산업이 확산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회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기관 등이다.

인센티브는 유형에 따라 건별 2000만원 한도로 행사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휴(休) 마이스' 시설을 지정해 육성한다.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별 고유한 특성이 있는 시·군의 독특한 자원을 발굴, 인근 회의·숙박시설과 연계한 중소 규모 휴양형 마이스 행사도 유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방역 13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에서 방역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방역을 하고 있다. 조선대는 입국을 앞둔 중국 체류 유학생 260여명을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14일 동안 격리한 뒤 수업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5·18 40주년 앞두고 사적지 29곳 정비

전일빌딩·전남대 정문 등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사적지를 점검한다.

대상은 1998년 1호 지정된 전남대학교 정문 등 29곳이다. 시는 사적지 표시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5·18유공자가 안장된 구 묘역을 중점 점검해 훼손된 시설물을 오는 4월까지 집중 보수한다.

시는 또 사적지 28호인 전일빌딩(제28호)을 복원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4월 재개관하고, 옛 전남도청(제5호)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복원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옛 국군광주병원(제23호), 505보안부대 옛터(제26호), 고흥남순 변호사 가옥(29호)도 원형 보존하기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복원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을 진행한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내외에서 5·18사적지 방문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정신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적지 관리와 복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10개 전통시장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음성'

市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광주지역 전통 시장들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표본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철새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수시로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13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 10개 전통 시장의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업소 46곳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업소의 도마 등에서 환경 시료

75건을 채취해 검사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3차례에 걸친 전통시장 닭·오리 판매 업소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은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국내 겨울 철새는 총 163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 증가했으며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본격 가동

국토부 공모 최종 선정 목포·여수·강진군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전남도(광역형)와 목포시·여수시·강진군(시군형)이 최종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남도와 목포, 여수, 강진은 각각 국비 6억원씩 지원받게 되며, 자체사업비 6억원을 포함해 각각 1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CCTV 영상 정보를 연계한 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에 제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방범·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112센터 긴급영상·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도는 특히 이미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4개 시·군(나주, 순천, 함평, 완도)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된 3개 시·군과 연계해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